

행복·환경... 백화점 이색강좌 봇물

봄 학기 맞아 강좌 수 늘리고 전문강사 초청

건강관리 트렌드 반영 다이어트 강좌도 늘려

'행복'을 테마로 하는 전문인 초청 특강, 환경 관련 교육 및 체험강좌까지 지역 백화점들이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강좌를 선보이며 문화센터 봄 학기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수도 늘리고 현장 체험을 원하는 요구에 따라 체험강좌도 확대했다.

광주신세계는 9일 오는 3월 봄 학기를 맞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고려한 다채로운 테마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봄 학기에 주목을 끄는 점은 매년 수강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인 특강'을 강화한 것. '행복'을 테마로 각계 전문인들을 초청, 행복하게 사는 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월6일 최일도 목사의 '아름다운

도를 반영해 '홈 디자인·데코' 강좌를 확대했으며 30대 학부모 수강생을 위한 '부모를 위한 심리학'도 시즌별 시리즈 강좌 강화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는 봄 학기 테마를 '지구를 지켜라'로 선정, 환경 관련 교육 및 체험강좌를 준비했다.

'어린이 환경체험 담사'에서는 무등산 등을 찾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기르고 환경보호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재활용 의류를 이용한 의류리폼 DIY'에서는 폐의류를 모아 집안에 필요한 생활용품 만들 수 있으며 '천연성분 베이비용품 만들기'도 가족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기에 좋은 강좌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내달 8일까지 2014 아카데미 봄 학기 수강생을 접수하며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8일까지 봄 학기 문화센터 회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상만들기'를 시작으로 3월21일에는 행복전도사 정덕희씨의 '그럼에도 행복하소서' 강좌가 열린다.

3월23일에는 국민사워로 알려진 합의병 피부과 전문의를 초청해 사위와 장모간 원만한 관계 유지의 비법을 들어보고,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 건강 노하우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다이어트에 대한 강좌도 대폭 늘렸다.

배우 한가인씨의 바디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김윤아씨의 '탄츠플레이 운동법' 강좌를 비롯해 SBS 예능프로그램인 '스타킹'에서 '엉뚱교수'로 유명한 박진은 교수의 '디톡스 다이어트' 등 12개 강좌가 마련됐다.

또 최근 생활 디자인에 대한 관심



"컬링 체험 재밌어요"

9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백화점 1층에 마련한 컬링경기 체험장에서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부자 소비 10% 늘면
일자리 17만개 창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소득층별 소비 여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이 2006~2012년에 소비 여력의 10%를 더 소비했으면 연평균 신규 일자리는 16만8000개, 국내총생산(GDP)은 7조2000억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국 실질 민간소비는 2013년 현재 실질 국내총생산(1135조원)의 50.6%에 해당하는 574조원에 달한다.

민간소비는 높은 파급력을 지닌다. 민간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17, 취업 유발계수는 19명이다. 이는 민간소비가 10억원 증가하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각각 8억1700만원, 19개 증가한다는 뜻이다.

특히 소비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가 중요하다. 소비 여력은 가구별 실질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액수다.

2012년 고소득층의 월평균 가구당 소비 여력은 264만원에 달하지만, 중산층은 73만원, 저소득층은 -24만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경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성사잘한다-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출입, 전주고등학교출입]

결혼 정보

성사율 호남1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 혼

女

추천 회원

재 혼

男

의사, 변호사, 악사, 한의사	27~45세	전문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클리스트리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악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경량충격을 58dB이하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중량충격을 50dB이하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100세시대 대비 '행복모아 저축보험' 출시

NH농협생명 전남총국, 오늘부터 신상품 2종 판매

2만원대 보험료로 보철치료비 '스마일 치아보험'도

NH농협생명 전남총국(총국장 김홍주)이 10일부터 100세시대 노후대비에 적합한 '(무)NH행복모아 저축보험' 등 신상품 2종에 대한 판매를 시작하게 돼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이 선보일 2종의 신상품은 치과치료비 증가로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2만원대 보험료로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비를 집중 보장해 주는 '(무)NH스마일 치아보험(갱)'과 10세~20세 시대의 노후대비에 적합하도록 납입기간은 줄이고 환급률은 개선한 '(무)NH행복모아 저축보험' 2종이다.

(무)NH스마일 치아보험(갱)=

치과치료비를 종합 보장해준다.

목돈 드는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

비 보장(틀니 100만원, 임플란트 80만원, 브릿지 80만원)은 물론 일상적으로 때우고 씨우는 충전(5만원)과 크라운(10만원)도 함께 보장해 준다.

또한 5년 만기시에는 치아관리자금으로 만기보험금 50만원을 지금 하므로 계약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더욱 줄어드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무)NH행복모아 저축보험=인생 100세의 장수시대와 맞물려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납입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환급률은 개선한 저축보험 상품도 새롭게 선보였다.

(무)NH행복모아 저축보험은 최

소 2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최대 2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망보장을 최소화

해 환급률을 대폭 개선한 상품이다.

30만원 이하의 보험료로 가입 시

에는 기존 상품보다 환급률이 유리하며 연금전환특약이 있어 노후대비에도 아주 적합한 상품이다.

또한 가입나이(만15세~75세)가 확대됐고, 최소 납입보험료를 10만원으로 인하해 가입 부담이 줄었다. 또 여유자금 주가급락이나 비상자금 필요로 중도인출과 납입 일시중지도 가능해 한번 가입하면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김홍주 총국장은 "매년 초가 되면 고객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특히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집중해 가입하고 있어 이번에 나온 신상품들이 올해도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I 피해농가 3000만원·중기 3억 지원

NH농협은행 전남본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태순)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지원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

농협은행은 AI로 피해를 입은 농

업인과 주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 최

고 3000만원까지,(농식품)기업자금은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최고 3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1%까지 제공되

며, 특히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입을 유예해준다.

AI피해를 입은 고객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재

여정 및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

입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보증서담보 대출 및 정책

대출은 제외)을 제공하여 상환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피해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태순 본부장은 "이번 AI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인 대출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美 '엘런 입' 주목... 상승폭 제한 예상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중국의 경기

둔화우려와 신종국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며 주초반 큰 폭으로 하락하며 출발하였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금리동결과 미국의 실업률이 0.1% 포인트 하락한 6.6%로 2008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주후반 큰 폭으로 반등하며 마감하였다.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업률 하락과 건설고용부문 증가 등 고용지표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다.

이번주 엘런 연준의장은 연준이 반기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재 미국 경제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과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속도를 가늠할 기회가 될 것이다.

1월 FOMC 후폭풍으로 신종국 위기가 제기되었고, 최근 미국 1월 경제지표도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시장에 상처를 이탈 중이어서 엘런의 경기판단과 이에 따른 대응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장판단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변수인 실업률 6.5%에 근접하면서 이

에 대한 하향조정 및 폐지 여부에 대한 엘런의 발언 수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험률은 하락 중이나, 부진한 노동시장 참가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대 중이고, 12